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2월 12일 (제112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불평하지 말라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자들을 대강당에 모이게 했다. 면접 심사를 위해서다.

정장을 갖춰 입은 자들이 대강당에 모여 면접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다. 대기자들만 연신 시계를 볼 뿐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원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뭐 하는 거야?”,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하며 웅성거린다. 그래도 여전히 회사 측에서는 무반응이다. 두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화를 못 참는 듯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자도 생겼다.

드디어 대강당 문이 열리면서 면접관들이 나타나 말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접은 끝났습니다.” 다들 어안이 병병한 얼굴이다. 언제 면접을 했다는 건가. 면접관은 다시 말한다. “이 강당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시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준 행동과 말로 면접을 대신했습니다. 불평하고 욕하고 화낸 자들, 다 탈락입니다.”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집회 때였다.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케이프타운 공항에 도착했는데 영접 나온 사람은 없고, 기사와 낡은 봉고차 한 대만 보내진 상태였다. 영적 대부인 로버트 목사의 초청으로 갔는데 말이다. 우리 일행들은 ‘이럴 수가 있냐?’ 하며 분개했다. 그때 나는 우리 일행에게 “그분이 나를 테스트해보지 않겠니? 불평하지 마라.”고 말했다. 그리고 집회가 열렸는데, 대역사가 일어나니 로버트 목사가 납작 엎드렸고, 2011년 집회 때는 노구를 이끌고 2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나를 영접해주었다.

불평(不平)은 ‘아니 불(不)’에 ‘평평할, 다스릴 평(平)’으로, 마음이 평평하지 못한 상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울퉁불퉁하니 나오는 말이 거칠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 노를 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잠27:4). 애써 일궈놓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것이 분노다. 그러므로 나를 다스리자. 오리를 가져면 심리 갈 마음으로 살자. 그러면 분노는 사라지고 늘 평강이 임하리라.

나는 진실을 팔러왔다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 진행된 수요일예배를 통해 목사님은 진실이 메마른 이 시대의 영적 감성에 이렇게 촉구하셨다.

“이 우주의 역사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진실은 밝히고, 거짓은 어둡습니다. 진실은 알곡이고, 거짓은 쭈정입니다. 진실은 영원하고, 거짓은 눈 깜짝할 때만 있을 뿐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제 아무리 설쳐봤자 이미 그의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 권세를 박탈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는 것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에 음식 맛이 없으면 고객은 절로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떠나고 주변에 사람이 떠나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왜 주위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왜 환경을 타락시키는지?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사업도, 목회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도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깨끗하고 진실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뵈는 다’(마5:8) 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잠2:7)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 메시지의 18번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아닙니까? 나는 거짓말을 못하진 않지만 안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



인천예수중심교회 수요일예배 광경

더욱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힘써 나를 알라, 진실하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저는 37년 목회하는 동안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는 이 말씀을 앞세우고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고 외쳐왔습니다. 나는 진실을 팔러왔습니다. 그 진실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시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호4:1~2).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인간미가 없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고 지속적으로 외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진실이 없다,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통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진실을 다 내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거짓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실도 버리고, 인애도 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저주하며 세상 것으로 가득한 채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실을 팔러왔습니다. 진실이신 하나

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안 합니다. 카메라가 내 설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모습을 촬영해내듯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에 있었던 것은 진실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지 결코 남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며 밤늦도록 들어주고 기도해줍니다. 이것이 내 목회 성공의 비결입니다.

나는 진실을 팔러왔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분명하면 뽕뽕하고 당당합니다. 진실하면 담대합니다. 진실은 온 우주를 초월하는 화해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위드코로나, 단계적 원상회복 조치로 50% 대면예배 실시

주일에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10:35~39)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5~9)

이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초석아,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때 이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봅니다.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에 비유하는 목회 37년이란 세월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위협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담대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삶의 암적 존재다

여러분, 담대함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예수 믿기 전, 저는 거의 매일 친구들이나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술을 마실 때는 호탕하던 사람들이 자리를 파할 때면 괜히 신발 끈을 오래 매거나 화장실이 급하다고 먼저 나가곤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야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그랬지요. 돈이 없으니 담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산서를 손에 들고 당당히 계산을 했습니다. 제 주머니에 돈이 두둑했거든요. 돈이 저를 담대하게 만든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담대합니다. 그러나 돈은 있다가도 없고, 권불십년(權不十年)인지라 권력도 영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찌니”(시146:3).

우리의 담대함은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엡3:12).

오래전 대전에서 집회를 할 때입니다. 집회 장소로 기독교연합회관을 계약했는

데, 아마 대전 기독교 측에서 편죽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회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래서 계약과기에 따른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회 장소를 쓰소. 그러나 전기는 끊겠소.” 그래서 제가 “베니스의 상인도 못 읽어봤는가? 전기를 끊는 건 좋다. 그러나 불은 들어오게 해라.”라고 쩌렁쩌렁한 소리로 응수했더니 그들은 군소리 못하고 장소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뭘 믿고 그렇게 소리쳤을까요? 바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1991년, 올림픽공원 사
이 클
경



총회장 이초석 목사

기
장
에
서
의
일
입니다. 그
날 태양은 왜 그
리 내리쬐는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태양을 마주보고 설교를 해야 하는 저는 눈조차 바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통성기도를 시키고 하늘을 보니 조각구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구름아, 태양을 가릴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름은 태양을 가려라.” 어디서 그런 담력이 솟았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작은 구름이 이동하며 점점 커지더니 딱 태양을 가린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탄성과 감사가 귀에 쟁쟁합니다. 만일 제가 ‘명령해도 안 될지 몰라’ 하고 두려워 떨었더라면 절대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피약별 아래서 예배를 드리느라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더라’는 믿음이 저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2003년 슬라바 목사와 저는 키르기스스탄 집회 때 KGB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슬라바 목사와 저는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한참을 대기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GB 요원을 만났을 때 저는 담대하게 “할렐루야!” 하고 악수를 청했고, 슬라바 목사는 러시아어로 “이 목사님은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다. 이 목사님을 건드리면 세계가 당신 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슬라바 목사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
나니 사
람 이
내
게

어
찌
할
꼬”(시
118:6).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경험이 있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담대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요?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지키시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하게 하실 것이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사43:2).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다윗이 담대했던 것도,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기드온의 300

명 용사로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부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

당신이 두려워 떠는 것은 성령 충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미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매사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어린 계집 앞에서 스승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겅쟁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죽을 수 있는 용감한 사도가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 정전사태를 만들어 우리의 삶을 갇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별 것 아닌 것에 놀라고 두렵게 하여 마침내는 우리를 공포에 질려 죽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불만 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의 불, 곧 성령의 불만 밝히면 어두움의 주관자인 악한 마귀는 도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에 충만하면 담대하게 되어 악한 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여 더욱 담대한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에 놀려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로 대를 이을 자식은 강하게 키우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도 두려워하면 뭍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나가면 개강거리고 꼬리를 내립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자 무서워 난리를 치며 주무시던 주님을 깨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8:26)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웅달샘 ::

시험

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최종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참 시험도 많이 보았다. 그리고 그 게 끝인 줄 알았더니 군대 가도 시험, 나와서 취직하려니 또 시험. 그리고 보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굳이 종이 시험지를 앞에 두고 보는 시험 뿐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가다보니 내가 넘어야할 시험들이 끝이 없다.

학창시절 시험을 봐서 알지만 시험을 보는 족족 매번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없다. 굴곡이 있게 마련이고, 대학입시나 입사시험 등에 고배를 마시고 재도전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들어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일수록 영적 시험의 크기와 강도가 더 크고 세져가는 모양이다.

‘시험에 들어여.’ 코가 석자나 빠져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고, 급기야 잠수를 댔는지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보통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 이미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시험은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셨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Henry Han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어머니의 교육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진실아, 기도해야 한다. 오직 기도밖에 없어.” 하시며 저와의 전화 통화를 끝맺으실 때마다 늘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당신의 발등이 다 까지실 정도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저는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순리였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들이었습니다. 몇 해 전 성령을 소멸하기 전까지 말이지요.

사랑과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는 저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저는 “진실아! 다시 기도 줄을 잡아야 해!”라며 울부짖으시던 어머니를 외면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신앙생활을 단절한 채, 들어간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입지를 굳히게 되었고, 많은 연봉 또한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주는 기쁨의 나날들보다 불안감이 저를 지배한 날들이 부지기수였으며, 마음의 헛헛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메시지들은 그 당시 제 귀에 들리지 않았고 믿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2~4). 즉 시험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부족함 없는 신앙으로 성장시켜주신다는 말씀이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 시험 볼 자격이 되었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응시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에 합당한 기간을 지나며 실력을 갖췄다고 인정하기에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이수해야만 대학입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대입검정고시를 패스해야 대입시험 자격을 얻는다. 따라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정당성이 입증된다. 더 상위단계로 격상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인정이니 말이다.

시험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통과해서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눅22:40)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기도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시험이 왔는가?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능동적으로 뛰어넘자. 상위자격을 주려고 문제를 냈는데 뒤로 물러가버리면 출제자를 실망시키는 일 아니겠나. 기도하면 되고, 감당할 만큼 주시며, 급기야 답까지 알려준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김진실 사모

숯불과 열등감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있어 숯불은 시장할 때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또 지치고 녹록한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었던 고마운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에게 있어 숯불은 자기를 하염없이 비참하게 만드는 콤플렉스의 통로가 되고 만다. 신약성경에 ‘숯불’이란 단어는 오직 두 군데에서만 쓰였다.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더라…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요18:18~27).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집 뜰, 바로 그 숯불 옆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 이때부터 베드로에게 있어 더 이상 숯불이 주는 따뜻함은 사라지고 만다. 비록 그의 몸은 녹일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녹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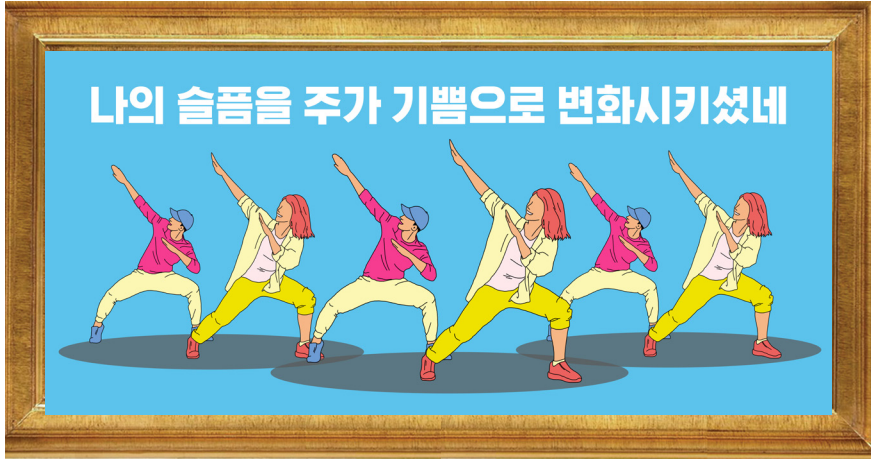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숯불’에서는

다르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요21:9).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 왜였을까?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숯불가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다. 지난날 그가 숯불가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쓰라린 기억을 이제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케 함으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숯불은 콤플렉스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결단의 매개체가 되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이 손을 내밀며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예수중심편집실



::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단독 드리블

최근의 일이다. 교회의 시설물들을 새롭게 수리하느라 성도님들과 협력하여 물질을 모았고 아름답게 잘 마쳤다. 그러고 나니 또 다른 수리를 할 마음을 주셨다. 물질이 더 필요했지만, 또 광고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다. 마침 총회장 목사님께서 ‘나는 다른 방법을 하실 때 강하게 믿음이 왔다.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기로 말이다. 불과 열마 지나지 않아 우리 교회 성도님의 지인인 어느 타 교단 집사님께서 헌금을 하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감사헌금을 드리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고민했다고 한다. 우리 성도님께 오랜만에 전화하여 안부를 묻다가 감동이 와서 헌금을 드리게 된 것이다. 그 집사님에게 축복기도를 해드렸더니, 돌아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 고백한다. 꼭 필요한 만큼의 헌금을 보내주셨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분만의 비상한 방법으로 말이다.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 모든 영광은 그분께만 돌려 드림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영광을 절대로 빼

앗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례가 전쟁터에서 미신적 수단으로 앞세워진다(삼상4장).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법례는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다. 블레셋의 다곤 신과 협력하여 물리적 행운과 복을 주리라 예상된 법례의 신여호와가 다곤 신을 쓰러뜨린다. 또 옮겨지는 블레셋 도시마다 독종으로 재앙을 일으켜 법례의 영광에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 법례 운반법(출25:14)을 어긴 웃사를 죽이시고, 법례는 드디어 다윗성에 입성한다. 그분의 영광이 인간의 미신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뿌리치시며, 내 편리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인위(人爲)를 물리치셨다. 이 모든 법례 이동 과정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신 일이다. 축구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선수라도 단독 드리블은 불안하다. 빼앗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공(功)을 넘겨드리면, 그분의 단독 드리블은 빼앗김 없이 정확히 골인으로 연결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와, 그것을 만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

송직화 목사

홀로 우는 사람들에게

얼마 전, 한 직원의 표정이 좋지 않아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려움도 묻고, 용기도 북돋우며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눴고, 며칠 후 밝은 표정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며 안도했지요. 한 번 더 다가가 인사하고 어깨를 토닥여주려다 바쁜 일정에 발걸음을 돌려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정불화를 비판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발걸음을 멈추고 어깨 한 번 더 두드려주지 못했던 것이 못내 후회가 됩니다. 약한 영들을 막지 못했다는 생각에 불같이 화도 났습니다. 아무도 크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모두들 그 직원을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 마음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졌다면 눈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갑자기 쓰러진 환자와 보호자를 많이 접했는데, 이때 환자의 삶이 보입니다. 가족,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서럽게 울며 가슴 아파하면 그의 삶은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고, 가족들이 서로 싸우거나, 아예 아무도 오는 이가 없는 분은 참

애처로운 삶을 사셨구나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어떠했든,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산부인과입니다. 10개월간의 우여곡절을 겪고 죽음힘을 다해 아기를 출산하는 곳이지요.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 동안, 산모와 보호자는 물론이고 수많은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마음을 모아 애를 씹니다. 생명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의 희생과 정성, 보호 아래서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지요. 죽음의 최전선과 탄생의 최전선을 번갈아 지켜보았던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삶은 결단코 유한하지만, 비로소 희생과 사랑이 있기에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설령 아무도 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았던 것 같고, 방치된 삶을 살고, 혼자인 것 같아 외로운 마음이 들어도 당신은 힘겨운 과정을 견뎌 생명을 얻었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조건 소중한 사람이며, 혹여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랑을 통해 거듭난 보물입니다!

르지만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자외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미세한 소리나 지구가 돌아가는 거대한 굉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가다가 막힌 길도 있고, 끊긴 길도 있으며,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위험한 길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종교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자는 천하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철학이나 심신 수련을 통해서도 결코 천국에 갈 수

울어도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대단한 재물, 명예, 인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한 번 더 베풀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 글을 접하는 분이라면, 이 땅에 태어나 숨 쉬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건강, 물질, 인간관계의 무너짐과 상관없이 당신은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의 손길로 얻은 소중한 사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자면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의 피 값과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 동역자들의 기도가 모여 복음을 듣게 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홀로 외로워서 눈물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누군가를 명하여 기도 받으실 것이며, 그 기도 안에 우리가 함께할 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주시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며, 당신의 삶의 ‘꽃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천하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 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꿈같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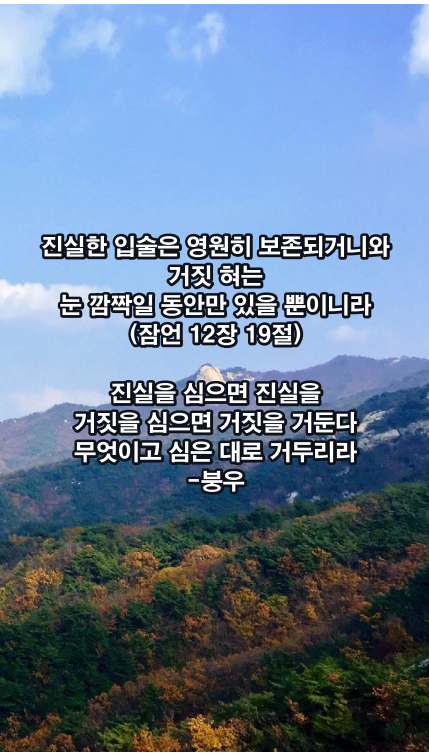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어느 유명인에게 관에 누워있는 자신과 꼭 닮은 모형을 보여준 후 이제 자신의 삶이 딱 7일 남았다고 가정하고, 남은 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내는지 담아내었다. 그 유명인은 먼저 며칠 동안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감사했던 분들을 만나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방문했다. 그 후엔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한 후, 마지막 날엔 자신의 배우자가 가끔 낚시 가고 싶어할 때 함께 가고, 힘들어할 때 안부 전화해줄 만한 친구를 만나 남편을 부탁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가끔 맛있는 음식을 해줄만한 친구를 만나 자녀를 부탁한다. 프로그램을 마치며 그의 소감은 이것이었다. 배우자는 어떻게 마음의 정리가 되는데, 자녀는 어떻게 해도 마음의 정리가 안 된다고. 첫날의 마음과 마지막 날의 마음이 다르더라고. 그리고 현재의 일상이 정말 매우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나에게도 그러한 7일이 주어진다면?’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무엇보다 나의 아이들을 떠올리니 자녀와는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유명인의 말이 공감되었다. 머릿속으로는 하늘의 일이 생각나야 했지만, 마음으로는 땅에 남은 나의 소중한 이들이 계속 생각났고, 정말 평범한 나의 일상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삶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유명인은 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고 많았다고, 이제 좀 편히 쉬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언젠가 나도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의 인자한 미소를 보며 이와 같은 말 듣기를 꿈꾼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는 편히 쉬거라.”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나
거짓 혀는
는 껌딱지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19절)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둔다
무엇이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봉우

Good News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귀에 대하여 과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절대 진리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 있고 환청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무지개의 일곱 색깔을 보고 탄성을 지

위장병, 생활을 바꿔야 산다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병이 위장병이다. ‘더부룩하다’, ‘속이 쓰리다’, ‘트림이 난다’ 등 증세도 다양하다. 어느 경우는 위장이 나쁜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시경 검사다. 암이나 궤양 등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위암은 조기발견의 경우 수술칼로 배를 열지 않고 내시경이나 복강경만으로 95%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궤양 역시 ‘아직 도 속쓰림으로 고생하십니까?’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치료제가 속속 등장해 대부분 수 주 이내 먹는 약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문제는 내시경에도 잡히지 않는 위장병이다. 내시경 소견은 정상인데 환자는 아픈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위장병이 여기에 해당한다. 흔히 ‘신경성 위장장애’, 혹은 ‘기능성 위장장애’라 부른다. 이러한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

야 할까. 첫째, 내 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한다. 자신의 위장이 왜 탈이 났는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신경성 위장장애는 스트레스로 뇌와 위장을 연결하는 자율신경의 리듬이 깨져서 나타난다. ‘아, 내가 신경을 많이 썼구나. 좀 쉬어야겠네. 하지만 내 위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라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둘째, 주시하지 말자. 자신의 위장을 끊임없이 의식하지 말란 뜻이다. 위장이 나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항상 자신의 위장을 의식한다는 것이다. ‘이제 밥을 먹었으니 좀 있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겠지.’라는 식이다. 매사 이런 식이니 건장한 위장이 라도 배겨날 리 있겠는가. 다소 아프더라도 다른 일에 몰두하며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셋째, 음식을 먹을 때 위장을 배려해야 한다. 오장육부 중 유일하

게 이식수술이 불가능한 정교한 장기가 다. 거친 섬유소가 많은 비빔밥이나 기름기가 많은 자장면은 좋지 않다. 대신 익힌 곡류나 살코기는 소화가 잘 된다. 쌀죽에 쇠고기 장조림을 곁들여 먹는 게 좋다. 넷째, 걷기가 보약이다. 걷게 되면 긴장이 누그러지면서 성난 위장의 자율신경을 달래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복근이 저절로 강화되면서 위장의 움직임도 원활해진다. 식후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다. 다섯째, 복식호흡을 해보자. 한숨 자체가 교감신경의 톤을 떨어뜨려주며 동시에 위장 근처 횡경막 근육의 경직도 풀어주기 때문이다. 이때 복식호흡은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권장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15:13)

Dr. 조희경 집사